

[금대봉 자연해설 시나리오 모음집]

프로그램 개요

해설 주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해설 소재	금대봉		
해설 대상	청년 취준생 54명	해설지원	
해설 재료 (준비물)	비상약,루페.우리나라 지도.	소요시간()	4시간
운영자	이영희		

해설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태백산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이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춥다고 느껴지죠?

어제부터 태백에서 지냈는데 느낌은 어떠셨나요? ~~~~

잠자리와 식사는 괜찮았나요? 네~~~좋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태백이 처음이라 낯설은 친구들도 있을텐데요 새로운 경험이라 설레이기도 할거예요.
오늘은 저희 태백산에서 꽃이 많아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습
니다. 어제도 간단히 국립공원을 소개했겠지만 다시 간단하게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곳,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퀴즈~~태백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국립공원일까요?

너무 쉽죠?~~ 22번째 정답입니다

오늘은 가는 길에 제가 퀴즈를 낼 건데 맞추는 친구에겐 선물이 있습니다.

그 뜻은 제 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맞춘 친구는 선물 (손수건)증정

네~~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태백산은 2016년 8월 22일에 22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되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신라시대부터 약 1800년간 하늘에 제를 지내던 천제단이 있고, 살아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500년 된 주목의 군락지가 있으며 한국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인 금대봉 특별보호구역 등 다양하고 뛰어난 생태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방할 곳은 두문동재에서 출발하는 금대봉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있는 뒤를 보시면 표지석에 백두대간 두문동재라고 되어있죠~~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백두산에서 부터 지리산까지 강과 물을 건너지 않고 이어진 큰 산줄기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산맥의 중심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척추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백두대간을 타고 예전엔 호랑이와 여우 곰 등 동물들이 오르내렸다고 하며 경제 발전의 중심이 이어졌다고들 하죠.

아주 중요한 곳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딱 허리쯤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국도 중 가장 높은 해발 1268m에 있으며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백두대간의 중심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곳은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으며 생태보존을 위해 하루 300명씩 인원제한을 하는 곳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특별한 식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탐방하시는 동안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제게 비상약이 있으니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은 태백과 정선의 경계지역입니다.

이곳 두문동은 유래가 있는 곳입니다.

옛날 고려 말 조선 초에 고려의 망국유신들이 삼척으로 귀양 온 공양왕을 만나러 왔다가 공양왕이 죽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 고개 아래 마을에 은거하며 두문불출,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살았다고 하여 마을이름을 두문동이라 하였으며 태백에서 그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두문동재라고 불립니다. 후에 이 망국유신들

중 일부가 살기 힘들어 조금 아랫마을인 정선군 남면 땅에 내려가 살았는데 일곱 명의 현인이 살았다하여 거칠현 마을이라 불리웠으며, 그들을 기리는 거칠현 사당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지인 이곳이 옛날에는 더 오지였겠죠~

이들이 삶의 고달픔과 고향을 그리며 흥얼거린 가사가 지금의 정선아리랑입니다
남도아리랑이나 경기아리랑을 들어보면 굉장히 흥겨운데 정선아리랑은 굉장히 구성지고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간단한 주의사항은 발밑에 돌부리 조심하시고 흡연 안 되는 건 아시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쉬땅나무 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에서는 수수깡을 쉬땅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의 꽃모양이 마치 수수이삭처럼 보인다하여 쉬땅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보통 중부내륙의 산골짜기나 냇가에서 군상으로 자라며 반 그늘진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또한 뿌리가 땅속으로 뻗고 많은 줄기가 한군데서 모여나기 때문에 산의 울타리 역할을 하기도 하며, 꽃에 꿀샘이 길어 밀원식물이라고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흰 꽃무더기가 구름이 되어 흐르는 듯, 백설이 내린 듯 장관을 이룹니다.

숲속에 자라고 있는 나무 중에 진짜 나무가 무엇일까요?

옛 어른들은 참나무를 진짜나무라고 진목이라고도 불렀답니다.

지나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는 이 길에 참나무가 약 80% 이상 서식하고 있죠?

하지만 학명으로 참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는 없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는 이 나무를 참나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나무의 쓰임새를 보면 왜 참나무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우선 참나무로 숯을 만들어 썼구요, 이 나무에서 목초액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표고 버섯이 자랄 뿐 아니라 목재로도 사랑받고 있는 나무지요.

그뿐만 아니라 먹거리가 궁했던 옛날 이 나무들의 열매인 도토리로 목을 만들어 허기를 달래기도 했답니다.

여기 있는 참나무는 제대로 부르면 신갈나무인데 요즘은 그냥 참나무, 도토리나무라고 해요. 참나무들은 기후온난화로 인해 약 20가지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참나무들은 골짜기에는 별로 없고 이렇게 산꼭대기에 엄청나게 많아요. 신갈나무는 보통 한군데에 모여서 서식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갈나무들의 종족번식을 바로 다람쥐가 도와주기 때문 이에요. 겨울양식을 하기 위해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주워 열군데 묻어 두고는 세군데 밖에 못 찾아먹어요. 그러면 나머지 일곱 군데에서 싹이 올라 오겠죠? 그래서 이런 도토리나무가 많답니다. 태백에는 거의 대부분이 신갈나무입

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다람쥐는 그냥 다람쥐가 아니고 줄무늬 다람쥐예요.

참나무의 종류에는 떡갈, 신갈, 갈참, 굴참, 상수리, 졸참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밤나무등이 있는데요. 각 나무마다 독특한 이름의 유래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짚신바닥이 헤지면 그 잎을 짚신 밑에 깔았다고 해서 신갈나무, 떡을 쌀만큼 잎이 넓고 방부제성분이 함유되어 부패도 막아주는 떡갈나무, 임금님밥상에 올랐다고 해서 상수리나무, 잘 발달된 코르크층이 있는 굴참나무, 껍질에 주름이 깊은 갈참나무, 참나무 잎 중 가장 작아 쫄병 참나무라고 부르는 졸참나무 등 재밌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라색 꽃이 피고 있는 이 식물은 산박하입니다. 지금 가는 이 길에 군락으로 피고, 햇볕이 잘 드는 토양에 비옥한 곳을 좋아합니다. 박하가 주로 들에 자라는 반면 애는 산에 자라서 산박하라고하죠. 박하는 영어로 민트라고 하는데, 그리스신화에서 지옥의 신인 하데스의 연인 민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어요. 지옥의 신 하데스는 제우스의 딸인 페르세포네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미인이었지만 성질이 급하고 사나웠어요. 하데스는 아내 몰래 미모의 민테라는 처녀와 밀애를 나누었는데, 이를 안 페르세포네가 어느 날 둘이 사랑을 나누는 곳을 급습했어요. 하데스는 급한 나머지 민테를 향기는 질고 좋으나 볼품없는 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민테의 이름을 따서 이 꽃을 민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박하는 향기가 좋고 주성분은 멘톨로 치약이나 껌 사탕 화장품, 담배 등에 향기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꽃. 풀과에 속하며 깻잎나물, 깻잎오리방풀, 애잎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잠깐 뒤를 돌아보실까요?

지금 저와 함께 두문동재 입구에서부터 걸어온 이 길이 바로 불 바래기 길입니다.]

예전엔 이곳에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화전이란 주로 산에 있는 초목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를 파서 일구어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보니 산에 불이 자주 났지요. 사람들은 불을 질러놓고 이곳으로 와서 불이 어디까지 오고 있나 바라보고 있다가 맞불을 질러 불을 끄고 했답니다.

이곳에서 불이 어디까지 오는 가 바라봤다고 해서 불바래기 길이라고 한답니다.

갈림길이 나왔네요. 여기서 500m 우측으로 가면 금대봉(1418) 정상이 나와요.

금대봉은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는 상징적인 산으로 우리 태백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북쪽으로 가면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가 있고요, 남쪽으로 가면 낙동강의 실질적 발원샘인 용소가 있어요. 금대봉 정상에서 검룡소에 이르는 곳과 대덕산 일부를

포함한 지역 126만평이 환경부가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명한 곳이구요, 봄부터 9월까지 약 500여종의 야생화들이 천상의 화원을 이루어 피고 있죠.

이곳에서는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 들어보았나요?

그렇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샘물을 이루고 또 발원지를 통하여 그 물이 결국은 바다까지 가는 것처럼 처음부터 장대한 것은 드물죠.

여러분들 이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해야 하는데요,

물길을 보면 바다까지 가는 동안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기도 하고 폭포를 만나면 부서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생명수가 되면서 결국은 바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첫출발을 하게 되서 좋은 일만 있고 승승장구 하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혹시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금대봉을 생각해보고 양대강의 발원지를 떠올려보면서 그 물길이 가는 길이 어땠을까를 한번더 떠올려보아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대는 검대에서 온 말로 신이 사는 곳이란 뜻입니다.

유래에 정암사 절에 거주하시던 자장율사께서 사람들의 탐심을 잠재우기 위해 금대봉 아래에는 금탑을 묻어두고, 은대봉 아래에는 은탑을 묻어두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때 금대봉의 금 자에 금이 있다고 해서 산속 여러 곳에 금을 캐던 흔적들이 남아 있으나 어느 곳도 확실히 금맥을 잡은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금대봉에 금이 묻혀있다고 생각하며 전설의 금탑이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행운이 깃들여 금탑을 발견하신분이 계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상으로 가지 않고, 좌측 고목 나무샘 입구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여기는 고목나무 샘 입구입니다. 눈앞에 멋진 광경이 펼쳐지죠? 고목나무 샘은 한강발원지 위에 있는 발원 샘입니다. 여기서 보면 좌측에 백두대간 길에 은대봉, 저기 철탑이 보이는 함백산 정상, 우측 큰 산은 하이원 리조트가 있는 백운산입니다. 탁 트인 광경에 가슴속이 땡 돌리는 것 같죠?

저는 이곳까지 안내해 드렸구요, 가는 길은 다른 선생님께서 함께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구요.

(지금부터는 다시 회귀하여 두문동재 입구로 내려 갈 텐데요, 내려가실 때는 자유롭게 꽃들도 보고, 친구 분들과 얘기를 나누시며 가시겠습니다. 꽃을 관람하실 때 조심히 눈으로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체험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아쉬웠던 점 또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에서 좋은 추억 많이 남겨가시고 오늘 함께 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여행되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해설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다시한 번 감사드리고 해설사 이영희 었습니다.

□ 해설프로그램 개요

성 명	이영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 <input type="checkbox"/> 간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유 <input type="checkbox"/> 지정
대 상	대학생 10명		
제 목	나비생태 이야기		
해설주제	금대봉에 사는 야생화와 나비에 대하여 알아보기		
활동목표	나비의 생태를 알아본다. 금대봉을 탐방하며 야생화와 나무 등 생태를 관찰한다.		
해설재료 (준비물)	마이크, 나비날개 사진, 비상약, 루페, 곤충의 눈	소요시간 (분)	1시간 30분
유의사항	지정된 장소 외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뱀조심.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설 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교구재)	소요시간 (분)
도입		인사 및 소개		
주제별 해설	금대봉 및 두문동재 소개	금대봉 소개 두문동재 유래 및 소개		10
	곤충 해설 - 나비	나비의 생태 및 날개 색의 비밀 설명	나비날개 사진	10
	곤충 해설 - 모시나비	모시나비 설명	나비사진	10
	목본 설명	병조회플		5
	야생화 설명	마타리 설명		5
	발원지 이야기	고목나무샘 검룡소		10
마무리		마무리 후 인사		10

안녕하세요. 태백산국립공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태백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아 충북대학교요? 우리 딸도 충북대학교 나왔는데, 요즘 여름 방학인데 어떻게 MT를 태백산으로 정했나요?

동아리에서 오셨군요. 한강 발원지 탐사와 나비관찰? 잘 오셨습니다. 이곳 금대봉은 야생화도 많고 나비도 많죠.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금대봉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태백산국립공원에 속하는 금대봉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오늘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생태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고, 생물종이 풍부하고 또한 희귀한 동식물들의 집단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높아 국립공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산밑에 있는 마을을 지나오셨죠?

그곳은 고려 말 조선 초에 경기도 개풍군 두문동에 살던 고려 유신들 중 일부가 삼척으로 귀양 온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만나러 왔다가 왕이 죽자 고향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 고개 아래 마을에 은거하며 두문불출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살았다고 하여 두문동이라 불린 마을이고, 지금 계신 이 곳은 태백에서 그리고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두문동재라 부릅니다.

나중에 두문동에 살던 사람들 중 7명이 정선군 남면땅으로 내려가 살았는데, 7인의 현인이 살았다고 해서 거칠현 마을이라 불리웠으며 지금도 그들을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애환을 표현하고, 고향을 그리며 노래한 것이 바로 지금의 <정선아리랑>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두문동재에서 출발하여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까지 가는 구간인데요, 저는 고목나무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제게 비상약이 준비되어있으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구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비를 관찰하러 오셨는데, 혹시 나비의 비밀을 알고있나요?

천기누설을 제가 알려주는 건데요~~

나비가 알록달록한 무늬와 화려한 빛깔의 날개로 팔랑팔랑 날아가는 모습은 참 아름답고 우아하고 신비하죠?

나비는 종류에 따라 나는 모습이 천차만별로 조금씩 다르고, 색깔과 무늬가 다릅니다. 이렇게 나비가 종류별로 다 다른 것은 나비날개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비날개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날개에는 기왓장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비늘가루가 덮여있는데, 비늘은 나비의 몸을 비에 젖지않게 보호할 뿐아니라, 색채의 무늬를 나타내게 하고, 날개짓할 때 에너지를 적게 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비는 종들간에 먹이 경쟁을 하지 않는 참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곤충입니다.

유충때와 성충때의 먹이가 전혀 달라서 서로 먹이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충의 기주식물(식초), 성충의 흡밀식물(먹이식물)이 다 다른 것이죠. 나비들은 특이하게도, 꽃에서 흡밀하기 전 앞다리로 맛을 보고 주둥이를 삼입해서 꿀을 빠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나비는 어떠한 색소가 들어있지 않음에도 나비날개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은 나비날개 표면이 특정파장의 빛을 반사시키는 광결정의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나비날개는 빛의 성질, 흡수, 굴절, 반사를 이용) 정말 신비한 자연의 세계죠. 알면 알수록 머리가 숙여집니다. 나비의 생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구요. 더 깊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 공부하시길 바래요.

금대봉에 사는 나비 종류를 말씀해드리면, 붉은점모시나비, 모시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 산제비나비, 연푸른부전나비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이동해보실까요?

여기 보이는 모시나비는 2급 보호동물로 분류하는 멸종위기의 곤충입니다. 날개는 비늘가루가 적고 백색으로 반투명하며 뒷날개 앞면의 가장자리는 검정색이고 그 부분에 회백색의 짧은 털이 많이 있습니다. 날개가 반투명한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비슷한 것으로는 붉은점 모시나비가 있으며 붉은점 모시나비는 날개에 빨간 점이 선명하게 박혀있어서 마치 일본의 일장기를 닮았다하여 일본사람들이 비싸게 사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붉은점 모시나비도 2급 보호동물이므로 법적으로 반출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모시나비의 먹이식물은 애벌레는 현호색 종류들과 산괴불주머니, 어른나비는 기린초, 애기똥풀 엉겅퀴 등입니다.

모시나비계통의 나비들은 빙하시대의 추운 기후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생명력이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로 겨울나기를 하는 원통형 나비로 약 1년정도 살고 나비상태로는 1~2주 정도 삽니다.

여기 보이는 병조회꽃은 넓은잎 키작은 나무로 목본입니다. 윗둥은 나무이지만, 겨울에 줄기 위쪽이 풀처럼 말라죽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조회꽃은 꽃모양이 호리병을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꽃말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꽃의 모양이 마치 꽃잎을 살짝 열고 사랑의 얘기를 속삭이는 듯 하죠?

여기 동산에 넓게 펼쳐진 노란 꽃이 마타리입니다. 여름이면 산과 들에 키가 큰 야생화가 꽤 있지만, 이 품종은 관상가치가 매우 높죠. 마타리는 강인하면서도 잘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타리는 맛이 된장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한방에서는 패장이라 하여 약재로 쓰여요. 맛에 탈이 났다는 뜻으로 마타리라 부른답니다. 마타리와 비슷한 꽃이 있는데 노란 꽃이 피면 마타리, 하얀꽃이 피면 두깡인데

두 식물은 꽃이 피기전에는 구분하기가 힘들답니다. 꽃말은 변하기 쉬운 사랑입니다.

여기는 작은동산입니다. 눈앞에 멋진 광경이 펼쳐지죠? 여기서 보면 저멀리 좌측에 백두대간 길에 은대봉, 저기 철탑이 보이는 함백산 정상, 우측 큰 산은 하이원리조트가 있는 백운산입니다. 탁 트인 광경에 내 가슴 속이 땡 뚫리는 것 같죠?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여기는 고목나무샘 입구입니다 .고목나무 샘은 한강발원지 위에 있는 발원샘입니다. 발원지와 발원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발원샘은 강의 하구에서 가장 먼곳과 가장 높은곳에 있는곳으로 수량이 많을때는 물이 있지만 평소에는 물이 밑으로 스며드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발원지는 물이 일년 365일 물이 용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길을 따라 내려가면 나오는 곳이 한강이 시작되는 검룡소입니다.

검룡소는 물이 나오는 수굴입니다. 굴속에서 물이 나오죠. 물의양은 하루 2천톤정도 나오구요, 물의 온도는 일정하게 9도를 유지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겠죠~~

저는 여기 고목나무샘까지 안내해드렸구요, 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검룡소로 가실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들 가지구요, 이렇게 숲에 왔을 때 식물들을 보면, 제각기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어요. 각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키 큰 나무는 키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우리 태백산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였습니다.

금대봉의 들꽃여행

활동장소	태백산국립공원
소요시간	2시간
참가대상	성인
참가인원	10명
운영자	이영희

- 활동목표**
- 들꽃과 자연여행을 통해 심신의 치유를 경험한다.
 - 특별보호구역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환경친화적 삶의 태도에 대한 의식을 증대시킨다.

- 준비물**
- 구급약품, 등산화, 등산스틱, 교구재, 텀

- 유의사항**
- 산행 전, 안전교육 및 준비운동 실시
 - 돌부리조심, 자연물 훼손 하지 않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나누기 	10분
전개 1 (금대봉의 유래 및 생태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산국립공원 소개 • 금대봉 특별보호구역 소개 • 두문동재 유래와 백두대간의 중요성 • 함박꽃나무 • 노린재나무 • 미나리아재비 • 불바래기길 • 쉬땅나무 • 금대봉갈림길 • 병조희풀 • 산꿩의다리 • 관중 • 키버들 • 작은동산 • 고목나무섬 	10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함께 하는 우리, 작은 실천의 중요성 	10분

전개

* 인사 (도입)

안녕하세요!

태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태백산국립공원 소개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곳,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을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우리 태백산은 2016년 8월 22일에 22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되었습니다.

제일 막내둥이죠. 태백산은 크고 밝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신라시대부터 약 2000년간 하늘에 제를 지내온 천제단이 있으며,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산다는 주목이 약 2800그루 자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인 금대봉 특별보호구역, 세계최남단 열목어 서식지인 백천계곡 등 다양하고 뛰어난 생태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 두문동재에서 출발하는 금대봉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국도 중 가장 높은 해발 1268m에 있으며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백두대간의 중심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곳은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으며 생태보존을 위해 하루 300명씩 인원제한을 하는 곳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선택받으신 귀한 분들이세요.

* 두문동재유래

이곳은 태백과 정선의 경계지역입니다. 이곳은 옛날 고려 말 조선 초에 고려의 망국유신들이 삼척으로 귀양 온 거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만나러 왔다가 공양왕이 죽은 후 이곳 고개 아래 마을에 은거하며 두문불출,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살았다고 하여 마을을 두문동으로 하였으며 태백에서 그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두문동재라고 불립니다. 후에 이 망국유신들 중 일부가 정선군 남면 땅으로 내려가 살았는데 7명의 현인이 살았다하여 거칠현이란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거칠현 사당이 있는데요, 이들이 고향을 그리고 삶의 애환을 흥얼거린 가사들이 바로 지금의 정선아리랑 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탐방을 시작 하실 텐데요. 제 뒤로 천천히 따라 오시면서 자연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박꽃나무

- 여러분, 이곳 태백시의 시화(시의 상징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 꽃이 태백의 시화인 함박꽃입니다.

큰 눈송이를 두고 함박눈이라고 하는데 이 꽃을 비유해 붙여진 말입니다.

일명 '산목련' 이라고도 하지요.

함박꽃나무는 목련과로 같은 성을 쓰는 형제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 잎이 먼저 나고 꽃이 피어 보통 초여름에 꽃이 핍니다.

둘째 : 유별나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꽃은 북한의 나라꽃입니다. 보통 진달래를 북한의 국화로 알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나무에서 피는 난이라 하여 목란이라고 부릅니다.

함박꽃나무의 씨는 중국에서 매콤한 요리를 할 때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차로 달여 마시기도 합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내에서 가장 많이 보는 꽃으로 초여름에는 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 노린재나무

-이 친구는 조선시대에 특별한 쓰임이 있었던 노린재나무입니다.

노린재란 이름은 황회목에서 유래 되었는데요, 우리가 자초나 치자 등 식물성 물감을 천연섬유에 물들이려면 매염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린재나무는 천연염색의 매염제로 알려진 황회를 만들던 나무예요.

젓물이 약간 누런빛을 띠어서 노린재나무란 이름이 붙었답니다.

오늘날에는 숲속의 이름 없는 자그마한 나무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천에 물감을 들일 때 꼭 필요한 귀중한 자원식물 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황회를 이용한 염색기술을 일본에까지 보급시켰는데 노린재나무 잎을 끓인 물로 찹쌀떡에 색을 입혀 떡을 해서 팔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화과자의 시초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염색 할 때는 명반대신 사용하므로 산반이라고 불렀답니다.

* 미나리아재비

-아재비라는 뜻은 본래와 비슷하지만 좀 더 큰 경우에 붙여지는 명칭이죠~~ 즉 미나리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미나리는 꽃이 흰색인데 미나리아재비는 노란색의 꽃을 피웁니다.

고대에는 화살촉에 이 꽃을 독으로 사용 했을만큼 독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광택이 나며 선명한 노랑의 미나리아재비 색상은 버티컴 색상이라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기분 좋은 색입니다.

* 불바래기길

- 여러분이 걷고 있는 탐방로는 '불바래기' 라고도 합니다.

옛날 화전(火田)이 성행할 때 화전민이 많이 살았는데, 화전을 일구다 산불이 자주 일어 났습니다.

그때마다 이곳으로 와서 기다렸다가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곳 좌측은 정선 땅으로 불길이 넘어가지 않도록 맞불을 지르거나 산불을 기다렸다가 끄는 곳이라 하여 '불바래기' 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의 화전 농경의 흔적입니다.

* 쉬땅나무

- 이 나무는 쉬땅나무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에서는 수수깡을 쉬땅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의 꽃모양이 마치 수수이삭처럼 보인다하여 쉬땅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보통 중부내륙의 산골짜기나 냇가에서 군상으로 자라며 반그늘진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또한 뿌리가 땅속으로 뻗고 많은 줄기가 한군데서 모여나기 때문에 산의 울타리 역할을 하기도 하며, 꽃에 꿀샘이 길어 밀원식물이라고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흰 꽃무더기가 구름이 되어 흐르는 듯, 백설이 내린 듯 장관을 이룹니다.

* 금대봉갈림길

- 이봉우리가 금대봉입니다. 금대봉은 검대라고 신이 사는 곳이라 하였으며 검대가 금대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금대봉은 1,418m로 주목을 비롯한 각종 원시림이 뿔뿔하고 야생화가 많아 꽃의 바다라 하여 태백 12경중 하나로 금대화해(金臺花海)라 부릅니다.

또한 이 봉은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는 유명한 봉우리입니다.

금대봉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이 되고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용늪은 태백 시내에 있는 황지연못과 합류, 낙동강 1,300리를 흘러 영남의 곡창지대에 풍요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1개의 봉우리에서 남해와 서해로 흐르는 젖줄을 흘러보내는 아주 소중한 봉이기도 합니다.

* 병조희꽃

여기 보이는 병조희꽃은 넓은잎 키작은 나무로 목본입니다. 밑둥은 나무이지만, 겨울에 줄기 위쪽이 풀처럼 말라죽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조희꽃은 꽃모양이 호리병을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꽃말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꽃의 모양이 마치 꽃잎을 살짝 열고 사랑의 얘기를 속삭이는 듯 하죠?

* 산꿩의다리

- 삼지구엽초로 변장해서 많이 팔리는 식물이며, 황량하고 척박한 산에서 사는 가늘고 연약한 새의 다리 같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꽃이라 하여 산꿩의다리입니다.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숲속의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데요, 줄기가 길고 또 잎이 9장의 작은 잎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꽃은 흰색으로 줄기 윗부분에 모여(원추꽃차례) 달리는데 꽃잎은 없고 작은 꽃받침이 4~5가 있는데 꽃피기 바로 전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꽃받침 없이 수술로만 피는 꽃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수술은 많고 고리 모양으로 늘어서며 수술대는 윗부분이 넓고 흰색이며 바람으로 수정을 합니다(풍매화)

* 관중 (전개)

혹시 주라기 공원 만화 봤나요? 애니메이션~~ (대답)

보셨구나~~ 예전에는 유명했었죠?

이 친구는 그 주라기 공원에 나왔던 식물이에요. 기억나시죠?

공룡 만화에 나왔던 풀이 바로 저 풀이지요~~ 공룡 옆에서 보이던 풀~~

공룡시절엔 굉장히 컸었지만 공룡이 사라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또 나름대로의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 친구도 몸을 점점 낮출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공룡이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큰 공룡이 사라지고 작은 동식물들이 나타나면서 저 친구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낮춘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고생대의 살아있는 화석 식물입니다.

* 키버들

-이 나무가 키버들입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비옥한 습지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가 지나 줄기는 전통 공예품으로 만드는데 곡식을 까부는 키나 광주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왜 이 키버들이 습지가 아닌 1,300m 고지에 자생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동해안의 따뜻한 기온과 백두대간의 찬 공기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항상 안개나 비가 많이 와 습한 지역입니다.

항상 축축한 곳이라 키버들이 살기에는 알맞은 곳이라 이렇게 군락으로 자생하는 것입니다.

이 키버들은 세계 최고의 발명품인 아스피린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 지역은 수많은 야생화 군락을 이룰까요?

그 이유는 늦가을 북녘에서 발달한 고기압 기류가 북방계 식물의 씨앗을 실어 나릅니다.

고기압의 찬 공기는 1월에서 3월까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 태백 고원 상공에 이르는데, 동해의 해양성 기류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만나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태백산 일대의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기류에 실려 온 씨앗이 떨어져 화려한 봄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작은동산

- 여기는 작은동산입니다. 눈앞에 멋진 광경이 펼쳐지죠? 여기서 보면 저 멀리 좌측에 백두대간 길에 은대봉, 저기 철탑이 보이는 곳이 함백산 정상, 우측 큰 산은 하이원 리조트가 있는 백운산입니다. 탁 트인 광경에 가슴 속이 땡 뚫리는 것 같죠?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 고목나무샘

- 여기는 고목나무샘 입구입니다. 고목나무 샘은 한강발원지 위에 있는 발원샘입니다. 발원지와 발원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발원샘은 강의 하구에서 가장 먼 곳과 가장 높은 곳에 있는곳으로 수량이 많을 때는 물이 있지만 평소에는 물이 밑으로 스며드는 특징을 갖고 있구요, 발원지는 물이 일 년 365일 물이湧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 마무리

- 저는 여기 고목나무샘까지 안내해드렸구요,

-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분주령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검룡소로 가실 수 있고,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대덕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심해서들 가지구요, 이렇게 숲에 왔을 때 식물들을 보면, 제각기 자기자리에서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어요. 각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키 큰 나무는 키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꽃은 꽃대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우리 태백산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였습니다.

탐방예약구간을 지나면서 지천으로 피어난 야생화들을 보셨지요. 이 곳 숲과 길 가에도 많은 야생화들이 피어 있습니다. 어떤 꽃들이 있는지 살펴가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풀꽃에 대해서 3편에 걸쳐 시를 썼는데요. 아마도 1편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시입니다. 이름 모를 풀꽃과 같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격려의 시입니다. 아울러 자연의 신비로운 생명현상을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고 느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편과 3편도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풀꽃2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 풀꽃3

야생화, 풀꽃과 사랑을 하기전에 우선 이웃이 되려면 이름을 알아야 겠네요. 봄, 여름, 가을철 이 곳 금대봉 자락에 피어나는 몇몇 꽃들의 이름의 유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탐방 어떠셨는지요.

우리나라 야생화의 최대 군락지 금대봉, 대덕산 구간에서 바람이 가져다 준 씨앗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천상의 화원을 보았습니다.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서 생명의 원천인 물을 만났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풍력발전기가 언덕에 늘어선 멋진 바람에 언덕에 올라 야생화 씨앗을 물고 오는 바람을 품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아름다운 풀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유일사에서부터 천년의 나무 주목 군락지를 볼 수 있는 천제단으로 올라 민족의 큰 할아버지 단군왕검의 성전이 있는 당골로 내려오는 태백산 눈꽃산행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 연못과 그 물길이 산을 뚫고 지나가는 구문소에도 들려 자연의 위대함을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태백의 물닭갈비와 한우 고기도 맛보시구요.

봄의 태백은 황사와 미세먼지 걱정없는 산소도시입니다. 여름의 태백은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낮아 에어컨이 필요 없고 청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에 백천계곡과 철암동에는 선명하게 붉은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의 설경의 태백산과 함백산은 설화로 가득합니다.

태백산은 언제 와도 상쾌한 곳입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소 속 기 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성 명	임여영
대 상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50대 여성 10명		
제 목	괜찮아, 청춘이야! 내 마음 토닥토닥하는 날 - ㅏ dark 마-음의 찌꺼기를 토해니다.		
해 설 주 제	식물의 생존 전략을 삶의 의미를 재정비하여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자연과 대상을 동일시하여 현재 닳친 어려움을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다		
활 동 목 표	식물의 생존 전략을 통해 삶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갖는다.		
해 설 재 료 (준 비 물)	PT자료, 초대장, 블루투스 스피커, 사진자료	소요시간 (분)	7분
유 의 사 항	식물훼손에 주의하기, 탐방로 외 출입금지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 단계	해 설 주 제	주 요 내 용	준비물 (교구재)	소요시간 (분)
도입	해설사 소개	해설사 소개 및 주의사항 알리기	구급키트	1'00'
	금대봉 소개	. 대상과의 관계형성하기 . 금대봉-대덕산 탐방예약제 구간	PT 초대장	1분'30'
주제별 해 설	생명이 움트는 봄	.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곳, 금대봉 . 금대봉의 봄	PT 사진자료	1'00'
	화려한 봄의 이면	. 아름답고도 가혹한 계절 . 모성애, 인간만의 감정일까?		1'00'
	식물의 모성애	. 숨 막히는 숨바꼭질, 얼레지	PT 사진자료	1'00'
	자연을 닮은 우리	. 위아래 25cm, 얼레지 . 성장의 25년, 육아의 25년	사진자료	'30'
마무리	두 번째 봄	. 나의 금대봉엔 무엇이 있나 . 두 번째 꽃망울을 준비하는 우리		1'00'

□ 해설프로그램 시나리오

소 속 기 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성 명	임여영
대 상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50대 여성 10명		
해 설 주 제	식물의 생존전략을 삶의 의미를 재정비하여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자연과 대상을 동일시하여 현재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계기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진행순

해설 단계	해설 주제	내 용
도입	해설사 소개	<p>안녕하십니까, 태백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임여영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같이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는 50대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괜찮아, 청춘이야! 내 마음 토닥토닥 하는 날'이라는 제목의 트레킹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p> <p>안녕하세요? 저는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자연의 이야기로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 해설사 임여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옷 차림에서도 봄이 성큼 와있는 것 같습니다.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여러분과 이 따뜻한 봄날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곳은 자연생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 으로 꽃도, 꽃을 닮은 우리도 다치지 않도록 지정된 탐방로만을 이용하여 트레킹 출발을 하려 합니다, 혹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시다면 제게 구급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출발전 우리 다같이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하늘을 향해 가슴을 활~짝펴서 기지개를 켜보겠습니다. 어때요? 움추려 있던 몸이 좀 가벼워 졌나요? 네 좋아요.</p>
	금대봉 소개	<p>오늘 함께 걸으며 예쁜 봄날의 꽃을 보면서 울렁이는 마음을 함께 다독여 보려 합니다, 봄을 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혹시 제 2의 사춘기라 할 수 있는 갱년기를 힘겹게 버티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소리 없는 사춘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p> <p>이곳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매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동안 개방되며 유일하게 탐방예약제를 하는 태백산국립공원의 금대봉~대덕산 구간입니다, 하루 300명 미리 예약하신 분들에게만 문이 열리는 곳인데 모두 초대장</p>

		<p>은 받고 오셨나요? 그럼 여러분의 초대장을 볼까요? 우와, 모두 받으셨군요.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 '천상의 화원' 금대봉에 초대 받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의미로 여기 양말목을 활용해 한땀한땀 만든 행운의 열쇠고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이제부터 개방되는 시기중 가장 천상의 화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는 이곳에는 과연 어떤 야생화들이 피어 있는지 함께 보고 출발하겠습니다.</p>
주 제 별 해 설	<p>생명이 움트는 봄</p>	<p>어떠세요? 천상의 화원이라 할 만한가요? 이곳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완충지대로 다양한 생명들이 살게 되었고 이렇게 수많은 야생화가 이곳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늦가을 북쪽고기압의 찬공기가 그 이듬해초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 동해의 해양성 기류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만나 금대봉의 하늘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남녀가 서로 자존심 이라는 힘겨루기를 하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말하는 썸을 타듯이 말이죠.</p> <p>그렇게 기류에 실려 온 씨앗들은 늘 촉촉하게 젖어있는 이곳 대지에 떨어져서 하늘이 키우는 천상의 화원으로 가꿔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곳 금대봉의 야생화를 보기위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와본 사람은 없을 만큼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 이 길을 걸으며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 우리 가슴속 깊이 잊고 있던 내 자신을 찾아보면 어떨까요?</p>
	<p>화려한 봄의 이면</p>	<p>여러분들 중 혹 봄이란 말의 유래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건 바로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봄은 생명이 움트고 형형색색 대지를 수놓은 야생화가 핀 아름다운 봄이지만 이곳에 사는 누군가에겐 참 가혹한 계절이죠. 바로 멧돼지입니다.</p> <p>멧돼지는 들쥐, 곤충의 애벌레, 나무뿌리,또는 식물의 뿌리까지 먹는 잡식성 동물이지만, 12월에서 1월 번식하여 5월출산을 앞둔 어미 멧돼지에겐 먹을 것이 없어 참으로 힘든 계절이랍니다.</p> <p>과연 우리 인간만이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식물과 동물의 모성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p>
	<p>식물의 모성애</p>	<p>여기 보이는 꽃은 얼레지입니다. 이 꽃은 종자가 발아하여 꽃을 피우기 까지는 몇 해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꽃대가 25cm정도 자라며,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비늘줄기는 땅 밑 지하로 점점 깊이 25cm가량 자라게 됩니다.</p> <p>이렇게 얼레지가 뿌리를 아래로 깊이 깊이 내리는 것은 얼레지의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뿌리의 녹말성분을 먹으려는 멧돼지와 같이 뿌리를 탐하는 자들로부터 지켜내서 다음해 꽃을 피우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p>

	<p>자연을 닮은 우리</p>	<p>어떤가요? 자녀를 키우는 우리와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얼레지는 작년 우체국에서 발행한 DMZ의 자연 우표의 주인공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사진) 부서진 철모 사이를 비집고 보랏빛꽃을 피운 얼레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번 얼레지의 강인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특별히 얼레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와 닮은 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으로 25, 지하로 25 자라는 얼레지를 보면서, 우린, 성장의25, 육아의25를 보내고 50대의 반열에 든 우리의 과거와 오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p>
<p>마무 리</p>	<p>두 번째 봄</p>	<p>처음 씨앗을 품었던 그 첫 번째 봄보단 두 번째 봄을 맞이한 우린 세상을 나아가며 조금더 현명해진 지금을요 전 인생의 2막을 이곳 금대봉에서 해설사로 일하며 자연과 인간을 잇는 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꽃을 피우지 못한 새싹인 저에게 오늘의 해설은 많은 고통을 겪은 성장의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가슴 속 뜨거운 무언가를 우울함으로 끝내지 마시고 더욱 우울하고 더욱 처절하게 아프며 피어낸 두 번째 우리의 꽃을 함께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껏 부모의 기대, 자녀의 성장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젠 내 자신을 위해, 잊고 있던 꿈이 있다면 그것을 위한 씨앗을 꼭 틱을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을 '괜찮아, 청춘이야! 내 마음 토닥토닥하는 날' 이란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저하곤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금대봉에서 여러분의 씨앗을 발견하시길 기대하며 여러분과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 임여영이었습니다.</p>